

고흥군, 제2우주센터·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총력

공영민 군수, “국가 우주 인프라의 전략적 배치는 고흥이 최적의 선택”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한국형 스타베이스’ 구축을 완성하기 위해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가칭)’ 유치를 행정력을 집중하며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고흥군이 ‘제2우주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가장 큰 당위성은 국가 우주 정책의 연속성과 인프라 집적화에 있다. 현재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1조 6천억원 규모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제2우주센터가 고흥에 들어설 경우, 이미 구축된 고도의 인프라와 전문인력, 운용 경험을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특히 차세대 발사체와 유인 임무에 대비한 고빈도 발사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기존 센터와의 유기적 연계는 발사체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발사 안정성 측면에서도 고흥은 천혜

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간 기상 양호일이 250일 이상으로 안정적인 발사 운용이 가능하며, 지진이나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 위험이 낮은 점은 이미 나로우주센터 입지 선정 당시 충분히 검증됐다.

여기에 전국 유일의 우주센터를 조성하며 축적된 행정 경험과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그리고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는 군민들의 의견은 제2우주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다.

아울러 고흥군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 기관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중 대전과 경남에 비해 발사체 거점인 전남(고흥)에만 전담 지원 기관이 없어 산업 육성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발사체산업은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흥은 발사체산업 특구로서 산업을 키우고 기업들



육성하며, 기술을 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러한 고흥의 잠재력과 유치 노력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 균형 발전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자본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으로 “특정 지역, 특정 기업 등에 집

중 투자하는 성장 전략에 한계가 있다”며 “기회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환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주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특정 지역에 편중된 성장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전남 함평군이 미래형 축산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변화하는 축산 환경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함평군은 6일 2026년 축산분야 지원사업 66개 사업에 총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축산농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 방역·위생 관리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군, 66개 축산 지원사업에 60억 원 투입

축산업 진흥 본격화... 2026년 축산분야 사업 접수

군은 접수 마감 후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 타당성 검토와 평가, 심의를 거쳐 2월 중 2026년 축산분야 지원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사업은 ▲농가 맞춤형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등 축산분야 30종 ▲가축분뇨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 등 가축위

생 분야 16종 ▲축산농가 농장 입구 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 등 가축방역 분야 5종 ▲조사료 적재기(그래플) 지원사업 등 한우 육성 분야 15종으로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완료한 축산농가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각 사업 지침에 명시된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평군은 “지역 축산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함평/전광훈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오는 1월 23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6년도 귀농·귀촌분야 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도시지역(동 단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인 세대주이다.

단, 기수해자, 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

곡성군, 2026년도 귀농·귀촌분야 군비 보조사업 신청 접수

주택수리비 지원과 신규농업인력 육성 사업, 1월 23일까지 신청 접수

정 전 주택 수리 가구, 심사 점수 50점 미만, 주택 용자지원 사업 대상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당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창문 보수비를 지원하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만 65세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0만 원 보조 50%, 자담 50% 한도에서 시설하우스, 관정,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 입식, 농지 구입 등 영농 기반 조성

을 지원하는 귀농인 신규 농업 인력 육성 지원사업들이 있다. 대상자는 2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025년 도시민이 1,000여 명에 전입하고 그중 우리 군이 고흥이신 분이 80% 차지하고 있어 더욱 반가웠다. 귀향하는 도시민도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2026년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은 2025년 첫 운영을 통해 정기 간담회와 생활 불편 사항 모니터링, 외국인주민의 현장 의견을 군정에 전달하는 소통

무안군, 2026년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 모집

창구 역할을 해오며 생활 행정과 복지 서비스, 문화·교류 분야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외국인주민 친화적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모니터링단을 새롭게 구성해 외국인주민 참여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무안군

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국적과 배경이 다양한 구성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선발된 단원들은 정기 간담회와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등 긍정적 참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무안군 제공



영암 올케어안심주택, 낙상 사고 어르신 일상 복귀 지원

지난해 1호 주택 마련... 홀몸 어르신 퇴원 후 통합돌봄 받아

영암군 올케어안심주택이 낙상 사고로 어깨를 다친 80세 홀몸 어르신의 일상 복귀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 주택은 <영암군 돌봄통합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난달부터 영암군이 운영에 들어간 복지 공간으로, 고령자·장애인·퇴원환자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살던 곳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특히,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영암군민에게 주거·안전·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케어안심주택 1호를 영암학산국민임대아파트1단지

에 전용면적 29㎡ 규모로 마련했다. 같은 해 3월 전남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의료용 침대, 침구류 등 생활필수품을 갖췄다.

이곳은 현재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자체 복구가 곤란한 어르신 등의 임시 거주 공간이 되고 있다.

동시에 입주자의 건강 상태와 기능 수준에 따라 생활지원사와 응급안심, 식사 지원 서비스 등 돌봄을 원스톱으로 연결해 주고 있다.

케어안심주택 첫 입주자는 여성 어르신으로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 양쪽 어깨 관절을 다친 뒤 두 차례 입원을 거쳐 지난달 퇴원했다.

퇴원 후에도 양팔 사용이 어려웠던 어르신은, 바로 귀가할 경우 추가 낙상 위험도 높아 회복기 동안 돌봄과 안전관리가 절실했다.

영암군은 이 어르신을 노인 돌봄 수행기관 연계, 통합지원회의 등을 거쳐 같은 달 23일 케어안심주택에 입소하게 했다. 4주 남짓 현재는 생활지원사의 돌봄을 받으며 일상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는 어르신은 “안전해서 좋고, 집보다 편하다. 이곳에서 더 머물며 몸도 마음도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여수시, 청양군, 대덕구 등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해 케어안심주택을 마련했다.

올해는 입소자 발굴 강화, 압·퇴소 기준 및 이용 매뉴얼 표준화, 2호 주택 확보 등으로 케어안심주택을 돌봄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장성군 “눈처럼 흰 백비(白碑) 앞에서 청렴 다짐”

김한중 군수 등 간부 공무원 2일 박수량 백비 참배

장성군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 2일 오전, 황룡면 박수량 백비를 참배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한중 장성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 등 20여 명이 백비 뒤편, 헌화 등의 식순에 동참했다.

황룡면 아곡리 하남마을 출신인 아곡 박수량 선생(1491~1554)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청백리다. 38년간 관직에 몸담으면서 두 차례 ‘청백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생을 마감하기 전에는 “묘를 크게 하지

말고 비도 세우지 말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에 명종 임금의 아곡 선생 후손들에게 흰 돌을 하사하며, 선생의 청렴함에 흠이 되지 않도록 아무런 글씨도 새기지 않은 흰 비석을 묘에 세우도록 했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황룡면 ‘박수량 백비’의 유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박수량 백비를 참배하며 청렴이 군민 행복을 실현하는 ‘첫 단추’임을 되새겼다”면서 “새해에도 신뢰 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지도...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두수목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갈 같은...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보다 훨씬 사람을 만드려고 애를 쓰는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념스레 생각해...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풍만한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언더 다 잘될 테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언젠가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